

# 호랑이 다시 뿔다

KIA 22일 훈련 재개... 고참조 일본 온천캠프

29일 팬들과 한마당 행사...31일 마무리 캠프



2017시즌을 향한 '호랑이 군단'의 시계가 빨라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1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이 끝난 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LG 트윈스에 내주고 고요한 휴식의 시간에 들어갔다. 패배의 아쉬움은 진하게 남았지만 5년 만에 가을 잔치의 꿈을 이루면서 KIA 선수단은 예년보다는 느긋하게 휴가를 즐겼다.

휴식의 시간이 끝나고 먼저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시즌이 시작됐다.

5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낸 2군 선수단이 지난 17일 스파이크 끈을 다시 조여 매고 훈련에 돌입했다.

다음으로 '고참조'들이 회복훈련을 통해 올 시즌을 정리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3년 연속 '캡틴'을 맡아 팀의 가을잔치를 이끈 이범호를 비롯한 김주찬, 김광수, 김주형, 윤석민이 20일 일본 하코네로 건너간다. 이들은 5박6일 일정으로 온천 등

을 즐기며 회복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FA(자유계약) 신분인 나지완도 이들과 함께한다.

22일에는 가을잠을 자던 챔피언스필드가 분주해진다. 10일의 가을 휴가를 선물 받았던 1군 선수단이 22일 안방으로 돌아온다. '가을잔치'의 짜릿한 순간을 경험한 이들은 내년 시즌 더 높은 고지를 그리며 다시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31일에는 한 달 간의 마무리 캠프가 막이 오른다. 이번에도 일본 오키나와가 '호랑이 군단'의 무대다. 31일 오키나와로 건너가는 캠프 선수단은 11월29일까지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2016시즌을 정리하고, 2017시즌을 위한 내부 경쟁을 시작한다.

그라운드 위에서만 훈련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KIA는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응원을 보내 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특별한 자리이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특별한 훈련도 시작이 됐다. 행사 담당 부서의 출연진 섭외가 진행되면서 숨겨놓은 것을 발휘하기 위한 선수들의 개인기 훈련도 시작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열린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

<KIA 타이거즈 제공>

## 김응용 '야구학교' 총감독 맡아

2014년을 끝으로 프로야구 일선에서 물러난 '영원한 승부사' 김응용(75) 감독이 후진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 감독은 지난 1일 스포츠 기록 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가 개설한 '야구학교'의 총감독 자리를 맡았다.

야구학교는 야구 입문부터 전문 교육,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종합 야구 데미로, 오는 11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문을 연다.

김응용 감독 외에도 야구계 최고 전문가를 코치진으로 영입했는데, 임호준 전 LG 코치와 최주현 전 휘문고 감독, 송진우·조성환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이 야구학교와 함께한다.

야구학교는 수준별 단계수업을 진행해 야구 기본기를 훈련하고, 이를 통해 단계별 기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선수



기술지도뿐만 아니라, 재활 센터까지 갖춰 부상선수 관리에도 나선다.

강흥덕 전 두산 트레이닝 코치가 재활센터장을 맡았고, 재류병원과 야구학교 코치진의 협업으로 부상선수의 신체 재활과 기술훈련까지 함께 제공해 빠른 현장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김응용 감독은 2014년 한화 이글스 사령탑에서 물러나며 현장을 떠났고, 2015년 올스타전에는 사상 최초의 감독 은퇴식까지 치렀다.

평소 유소년 야구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응용 감독은 사재를 털어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김응용 필드'까지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이대호 31일 귀국

미국프로야구 진출 첫해에 제한된 기회에서도 한국인 타자의 능력을 보여준 이대호(34)가 오는 31일 귀국한다.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해 구단 요청으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려고 지난 2월 16일 한국을 떠난 지 8개월여만의 귀국이다. 몬티스스포츠에 따르면 이대호는 입국하는 자리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첫 시즌을 마친 소감과 향후 일정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대호는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거쳐 올해 보장 금액 100만 달러에 최대 4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하며 시애틀 매리너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이대호는 투수 유형에 따라 선발 출전을 결정하는 플레트 시스템 탓에



출전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104경기에서 타율 0.253(292타수 74안타), 홈런 14개, 49타점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4월 9일 오렌지 애슬레틱스와 시즌 홈 개막전에서 3경기, 5타수 만에 빅리그 첫 홈런을 쏘며 한국인 빅리그 역대 최소 타수 홈런 기록을 세웠다. 한·미·일 1군 무대에서 모두 홈런을 치는 진기록도 작성했다.

후반기 손바닥 부상과 타격 슬럼프로 한 차례 마이너리그에 다녀왔지만, 곧 메이저리그에 복귀해 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이대호는 시즌 종료와 함께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돼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LA 다저스 저스틴 터너(왼쪽)가 19일 홈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6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 홈런을 터트린 뒤 동료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저스, 컵스에 완봉승...NLCS 2연승

힐 6이닝 무실점...토론토, 클리블랜드 5-1 꺾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도 또 한 번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승제) 2승째를 선점했다.

다저스는 19일(한국시간) 홈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컵스에 6-0으로 완승을 거뒀다. 다저스는 지난 17일 2차전에서 클레이턴 커쇼의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승리, 1차전 패배에 설욕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서게 됐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승제)에서는 3전 3패로 버락 끝에 몰렸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월

드시리즈(WS)를 눈앞에 뒀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발목을 잡았다. 토론토는 같은 날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 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를 5-1로 꺾었다.

다저스와 토론토의 선발투수가 모두 호투했다. 다저스 선발투수 리치 힐이 6이닝 2피안타 2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토론토 선발투수 에런 산체스가 6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2개씩 내주고 삼진 5개를 잡아내며 1실점(1자책)으로 막았다.

양팀 타선도 활발했다. 다저스는 3회말

2사 2루에서 코리 시거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 선취점을 올렸다. 4회말에는 2사 3루에서 야스마니 그랜달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 6회말에는 선두타자 저스틴 터너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 홈런으로 컵스 선발투수 제이크 아리아에타는 5이닝 6피안타(2피홈런) 5탈삼진 4실점(4자책)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강판당했다.

다저스 마무리투수 켈리 안선은 마지막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지켰다.

토론토는 3회말 조시 도널드슨의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다. 도널드슨은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클루버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4회말에는 1사 1·2루에서 에세키엘 카레라가 중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토론토는 2-1로 앞선 7회말 달아났다. 무사 1루에서 호세 바티스타의 평범한 땅볼을 클리블랜드 투수 브라이언 쇼가 1루에 약속구해 무사 1·3루를 만들었다. 클리블랜드는 다음 타자 도널드슨을 고의 사구로 걸러 무사 만루 작전을 펼쳤다.토론토 타석에 들어선 에드윈 엔카나시온은 중전 안타를 터트려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며 4-1로 점수를 벌렸다. 토론토는 8회말 1사 후 카레라 우익수 3루타와 케빈 필라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묶어 1점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호텔 리베라 서울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각 팀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농구 '스피드업'

정규시즌 22일 개막...경기당 득점력 4.2점 상향 목표

한국프로농구 2016-2017 정규시즌이 '빠른 농구'의 가치를 내걸고 22일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규시즌 총 경기수는 270경기로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2017년 3월 26일까지 팀당 54경기를 치러 정규리그 1위팀을 가린다. 정규시즌이 끝난 뒤 플레이오프에 나갈 6강팀이 결정되며 3-6위과 4-5팀이 녹다운 방식으로 6강전을 치러 승자가 4강에 나간다. 4강에는 정규시즌 1위팀과 2위팀이 먼저 진출, 6강에서 올라온 팀들과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2팀을 결정한다.

이번 시즌은 빠른 농구로 경기당 득점

력을 올리는 공격 농구를 표방한다. 경기당 평균 득점 목표는 83점으로, 지난 시즌 78.8점에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10개 구단은 지난 시즌 활약을 펼친 193cm 이하의 단신 외국 선수와 재계약하거나 테크닉이 좋은 외국 선수들을 뽑는 데 주력했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 1위 전주 KCC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득점력을 갖춘 단신 선수 안드레 에밋과 재계약했다.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고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고강 오리온에 패했던 아픈 기억을 이번 시즌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 시즌 챔피언 오리온은 우승 멤버 이승현과 애런 헤인즈가 견재하다. 다만 팀의 활력소 역할을 했던 조 잭슨을 보내고 새로 선발한 오대리인 바셋(185cm)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워 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번 시즌 10개 팀 중 가장 돋보이게 전력을 보강한 팀은 역시 울산 모비스다.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모비스는 신인 최대어 이종현(203cm)을 신인 드래프트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배테랑 포인트가드 양동근에다 유재학 감독

의 지도력으로 정상 탈환을 꿈꾼다.

외국 선수 기용이 지난 시즌보다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각 팀 사령탑들의 지략 싸움도 프로농구의 재미를 더한다. 지난 시즌 1라운드에는 외국 선수 2명 보유에 1명 출전이었고 2, 3라운드에는 3쿼터에만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뛸 수 있었다. 4~6라운드에는 1, 4쿼터에 1명씩 뛴고 2, 3쿼터에는 2명을 동시에 기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4~6라운드 1~3쿼터의 경우 자율적으로 두 쿼터는 2명, 한 쿼터는 1명의 외국인 선수를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4~6라운드 4쿼터에는 1명만 기용할 수 있다. 1~3라운드에서는 1, 4쿼터에 1명씩 뛴고 2, 3쿼터에는 2명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 감독의 선수 기용 폭을 넓혔다.

/연합뉴스